

투데이 칼럼

물빛 축제... 올 여름 휴가, 번암에 있는 '장수 물빛공원' 으로

물은 생명을 키워내는 원천이다. 문명이 탄생한 곳에는 어김없이 물이 존재하고 있다. 인류의 4대 문명은 황하 유역 문명, 인더스강 유역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발전지 모두가 큰 강을 끼고 시작되었다.

그만큼 물은 중요하다. 사람의 몸도 구성분자의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물은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빛은 희망을 키워내는 원천이다. 희망을 이야기 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렇듯 생명을 키워내고 희망을 키워내는 물과 빛이 조화를 이루는 물빛축제가 8월 2~3일 우리지역에서 개최된다. 물길 따라 꽃향기 가득한 빛의 고장 번암에서 말이다. 총사업비 3,200만원(도비1,200만원, 군비1,000만원)을 지원받아 향후 4년간 매년 개최하게 되는 물빛축제는 물과 빛을 주제로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여름철 가족단위 축제로는 가장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다. 물과 빛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무더위를 날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축제, 사랑의 축제, 기쁨의 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행사 첫날에는 동아리 경연대회와 야외 영화관이 축제의 서막을 알



배형근

장수군 번암면장

린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쳐 보이는 멋진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 가족단위 감동을 주는 영화관람은 한 여름밤 멋진 분수와 어우러져 감동을 더해준다. 둘째날 본격적인 물과 빛의 향연이 시작된다. 신나는 놀이공간으로 에어풀장과 에어슬라이드를 설치해 축제 참여자들이 마음껏 물과 함께할 수 있고 수중 끝단벨, 수중 홀라후프돌리기, 수중 줄다리기 수중 보물찾기 열음위 오래버티기등 물과 함께하는 게임들이 물놀이의 즐거움을 더한다. 내손으로 만들어보는 체험부스에서는 아광부채만들기, 물총만들기, 추억의 편지쓰기, 밧짱이 어린이 타투, 우두마커스 꾸미기 등 나만의 멋을 뽐낼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와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경품잔치는 나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은근한 기대감에 짜릿함을 더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던가.

한참을 놀다 배가 고프면 주변에 마련된 음식코너에서 각자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어우러져 먹는 즐거운 시간이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 지역 농특산물도 구 할 수 있다. 지역민들이 직접 재배한 것이라 믿고 살 수 있다. 그 또한 꿀 팁이다. 하루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에는 페막공원이 이어지고 여름밤의 별빛과 어우러진 불꽃놀이로 물빛축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진다. 장수군은 금강산이진 뽕보생이 위치해 있다. 그 아래 수분령이라는 고개에는 금강으로 가는 물줄기와 섬진강으로 가는 물줄기가 나뉜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참 흥미롭다. 長水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물길이 길다 그만큼 물이 마르지 않고 깨끗하다는 것이다. 특히, 물빛축제가 열리는 우리지역 번암면은 수려한 산세와 깊은 계곡이 많아 물길이 길고 더 없이 맑다. 確鑿無疑(반계은린) 이라고 했다.

사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발전 가속화 기대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이다. 앞으로 발전 가속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익산시에 따르면 원재료를 위한 중계 공급 센터 등 식품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들을 위한 지원 시설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10억 원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고 뒤늦게 밝혔는데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것은 소식이 저번에 정부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방침을 밝힌 것을 생각나게 한다. 첨단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한 거 말이다. 최근 들어까지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것쯤이야 되어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있다. 이번이 아니다. 동화호 주변에 피는 벚꽃길은 호수를 끼고 80여km가 조성되어 꽃이 피는 봄철에는 순백의 향연이 펼쳐지고 한여름에도 우거진 나무 그늘 속을 다닐 수 있어 사계절 산책길, 자전거길로 각광 받는다. 백두대간 주능선인 봉화산에 피는 철쭉꽃은 봄철에 온산을 붉은 빛으로 물들이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묶어 놓기도 한다. 봄철이면 벚꽃과 철쭉꽃이 곁단을 자아내고 여름밤의 별빛은 어린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손색이 없다. 봉화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석양의 번암면은 긴 물줄기의 요묘한 빛으로 탄성을 내어준다. 이렇게 좋은 내 고향에서 생명의 축제가 물빛축제가 열린다.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아가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희망해 본다.

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상당하리라 기대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속도감이 낮다.도민이 본래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익산 식품 클러스터의 현재 모습은 미흡하다. 지난해 보도된 뉴스를 보고 답답해 했던 게 다시 생각나게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일 반 산업단지 수준으로 전락할 위 기라는 우려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북도와 익산 시는 농림식품부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앞서서 먼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겠다. 여러 번 말했거니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의 발전과 함께 전북의 발전도 약속하고 있다. 도민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본래 희망했던 바 그대로의 위용을 드러내게 되면 익산시는 그만큼 발전해 있을 게 틀림이 없다. 그리고 명실공히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할 터이다. 그리고 도내 농가들에게도 경제적 실익이 상당할 터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마음을 써야 한다.

성장 패러다임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북도는 최고의 관심사를 일자리 창출 쪽으로 돌려야겠다. 전북도가 지역 성장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연초에 밝힌 그대로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매번 지적했던 바, 청년 인구의 유출이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스무살에서 스물네 살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 더욱 심각하다는 보도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의 현실을 지적하는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기간제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데 그에 대해서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이 시점에 전북도에 물 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이다. 그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해서선 곤란하다. 전북도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제나 기간제 취업자들도 바라는 바는 한결같다. 그것은 바로 관청은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약속이 식인

이 되고 있지 않다. 전북도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성장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동안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닐 터인데 일자리 현황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다. 능력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저번에 도내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것이다.고용 구조의 현실을 고민해달라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 노력과 병행하여 일자리의 수준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 성장 패러다임을 정규직 일자리로 말해야 한다.어떻게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궁구해야 한다. 도내의 거의 모든 업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니 일자리도 줄고 고용의 질도 열악해지고 있다.현실이 이처럼 밑바닥 수준이니 전북도는 분발해야 한다. 전북도는 성장 패러다임 약속을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줄 책임이 있다.

독자제언

한 여중생이 친구들의 따돌림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적이 있었다. 유서에 "친구들 3명으로 부터 왕따(따돌림)를 당해 괴롭다. 부모님께서는 죄송하다"는 내용을 써 놓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실제로 초·중·고등학생의 자살은 2015년 93명에서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3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 해에 자살하는 학생 수가 숫자 자체로 봤을 때에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청소년 자살의 경우 같은 반,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미리 징후 파악이 가능한 성인 자살과는 달리 청소년 자살은 매우 충동적이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왕따'는 심리적 성숙이 도달하지

'왕따', 어른들의 지속적 노력·관심 필요

아니한 성인 이전에 경험하거나 쇠퇴기에 접어든 노년기에 경험할 경우 그 충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학급 가운데 7개 학급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왕따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따는 집단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폭력적인 힘의 서열관계에 의해서 왕따의 주도적인 역할이 정해지는 반면, 초등 학교 학생의 경우 선생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학생이 왕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사교성을 높여주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녀를 아담치지 말아야 한다. 자녀와 친구들에게 지나친 간섭이나 과도한 친절은 피하며, 자녀와 좋은 친구가 될 만한 아이를 찾아 그 부모님과 사귀어 자녀들끼리 우정이 돈독해지게 유도해야 한다. 학교 선생님의 무관심과 방치,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외톨이 생활에 빠져 병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의 아이들을 왕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철호 원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 전주매일